

서양단추 디자인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고대, 중세, 근세시대를 중심으로 -

양 리 나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부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nges of Western Button Design - Focused on ancient, middle and modern age -

Lee-Na Yang
Dept. of Fashion Design, Paichai University
(2003. 6. 3. 접수)

Abstract

Buttons in general reflect the culture of the society, and their values depend on practicality, decorative feature, and symbolism. Their infinite potential enables us to attempt various original changes in formative factors such as forms, patterns, colors, materials and sizes. In addition new styles, methods, and techniques are tried to show that the decorative feature becomes stronger today than it did in the past when the function was more important. Now buttons are not only a factor of clothing but have value as composite art works reflecting the pride, idea and culture of a nation. Moreover consumers' interest in new designs increases everyday as the moderns' desire for unique individuality rises. Button designs of Korea, however, are still far behind in the aspects of materials, qualities, and methods, facilities, and scale of production. And uniform mass production prevails without the buttons of creative and artistic values made due to the lack of specialized designers.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carry out historical studies simultaneously with the rising interest in button designs now. Prior to developing new designs, the study will examine those of western buttons that are the origin, going through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era and type. It may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the backward button designs of Korea.

Key Words: button design(단추디자인), decorative feature(장식성), practicality(실용성), symbolism(상징성)

I. 서론

복식은 인류의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인간의 미

적 요구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분야로서 인류의 문화가 어떤 단계를 거쳐 변화 발전되어 왔는가를 밝히는데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적 산

물이다. 인간은 석기시대 이전부터 자신의 몸을 장식하였으며, 그 수단으로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장신구가 발달하였다. 단추도 역시 그 장신구 중의 하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추는 그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실용성, 장식성과 기능성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또한 단추는 형태, 문양, 색상, 재료, 크기 등의 조형요소에 여러 가지 독창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이나 기법, 기술 등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어, 기능을 중시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장식성이 점점 더 강해짐을 알 수 있다.

이제 단추는 복식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사상, 민족의 자부심 등이 반영된 종합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추는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단추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의 단추 디자인은 소재, 생산방법, 품질, 시설, 규모 면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으며 전문 단추 디자이너의 부족으로 창의적이며 예술적 가치가 높은 단추가 생산되지 못하고 획일적인 대량생산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단추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추의 역할이 무엇이며, 단추디자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두며, 새로운 단추 디자인 개발에 앞서 본 연구가 먼저 선행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연구되어진 단추 디자인에 관한 선행논문들도 대부분 19, 20C의 단추산업 전성기때의 논문들이거나 혹은 동양단추에 관한 논문들로 연대기순 혹은 고대, 중세, 근세 등 각 시대별 서양단추 디자인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단추의 기원이 되는 서양 단추 디자인을 기능별, 시대별로 고찰해보고 그 특징을 알아봄

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 단추디자인 개발에 기초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함을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석기시대부터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의 근세시대까지 단추디자인을 연구하고, 후속으로 프랑스 혁명과 사실주의 시대인 산업화 시대부터 20C까지의 단추 디자인을 연구하여 다양한 서양 단추 디자인의 실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각 시대별 단추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 방대하여 단추를 기능별, 시대별 그리고 형태, 문양, 색상 등 조형요소별로 나누어 모든 것을 다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기능별, 시대별로만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양의 단추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자료, 정기간행물, 신문기사, 인터넷, 각종잡지를 이용한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로 유럽 여러 박물관 탐방과 특히 독일지역의 단추 소장가와 수집가에 대한 개별적 인터뷰를 실행하였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II. 단추의 기원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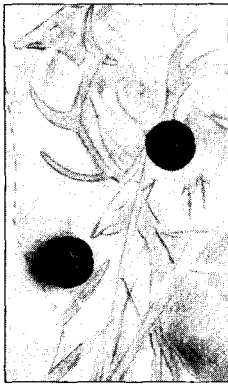
(1) 단추의 기원

현대적인 의미로 보아 단추라 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 낸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논쟁해왔다. 동물의 힘줄로 만든 고리에 뼈조각이나 나무조각을 후크처럼 연결시켜 여밈을 하였던 단추가 1만년전에 사용된 것이 발견되었다¹⁾.

또 호박²⁾으로 만든 원반모양의 단추들도 고대인의 무덤속 부장품으로 발견되었는데, 기원전 6,000여년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무늬가 새겨진 조개껍질 단추들은 독일 Halle시³⁾에 있는 주립 박물관에서

1) Annette, W. and W.W. Martina (1990), Knopf Design Frankfurt am Main : Deutscher Fachverlag GmbH, p.9.

2) 침엽수의 송진이 화석화되어 단단해진 것으로 호박은 5천만년전의 고생대(Alttertiar)기에 생성됨.



〈그림 1〉 돌단추

볼 수 있다. 또 돌로 만들어 천을 씌운 평평한 단추가 고대 독일의 고트인⁴⁾들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이 돌단추는 기원전 4500년에서 4000년경의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암석에 구멍을 내고 갈아만든 것이다. 이 역시 신석기시대에 이미 돌로 단추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그림 1〉⁵⁾

단추의 기원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시대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고⁶⁾ 가장 오래된 단추는 초기 철기시대의 것으로 재료는 뼈나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구멍이 뚫린 원반모양의 것으로 추정된다⁷⁾. 또 단추의 기원을 B.C 6000년전 고대 이집트 시대로 보기도 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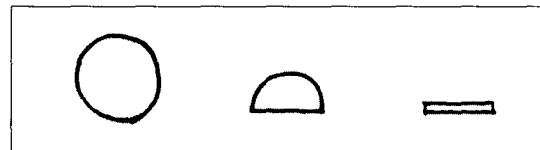
이집트 시대의 단추도 역시 두 옷자락을 뼈나 금속핀 등으로 끼우는 형태였다. 두 개의 금속고리를 연결하는 방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B.C 1세기 부터이다. 그 후 구슬 모양의 금속 단추를 루프 형태의 고리에 끼우는 단추가 등장하였는데, 그 모습이 마치 꽃봉오리와 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해서 라틴어로 'bouton'이라고 부르던 것이 버튼(button)이 되었다.

(2) 단추의 형태

단추를 형태별로 분류해보면, 크게 평면적 단

추와 입체적 단추로 구분할 수 있다.

평면적 단추는 주로 원반형 단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다각형, 별모양, 꽃모양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2~4개의 단추구멍이나 생크(shank)⁹⁾로 고정시키게 된다. 입체적 단추는 대개 구형과 반구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게 된다. 이 외의 형태를 지닌 단추들은 앞에서 설명한 형태를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 단추의 형태에 따른 분류(구형, 반구형, 원반형)

생크에 의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¹⁰⁾.

① 고리 생크(loop shank)

가장 보편적인 생크의 형태로 단추의 뒷면에 양끝이 끼워질 수 있도록 철사를 구부려서 만들기 때문에 '철사생크(wire shank)'라고도 한다.

② 원추형 생크(cone shank)

주로 18, 19C에 많이 사용된 단추 형태로, 동과 아연의 합금으로 만들어진다. 원추형의 두 끝이 단추 옴판에 끼워져 고리를 형성한다.

③ 거트 고리 생크(gut loop shank)

거크(gut)나 노끈(string)을 교차시켜 만든 것으로 뒷면이 나무와 뼈로 된 금속도금 단추에 사용한다.

④ 알파형 생크(alpha type shank)

고리축을 가진 한 조각으로 된 단추에 사용한다.

3) 독일 작센 안할트주에 있는 도시. 인구 약 29만(1994년 기준). 라이프치히 북서쪽 35km지점, 엘베강의 지류인 잘레강 연안에 있으며, 상업·교통의 중심지로 주요산업인 화학, 금속, 차량, 섬유 등의 근대공업이 활발.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화를 입지 않아 중세의 성, 교회 등 많은 옛 건축물이 남아있음.

4) 독일족대이동시대(Volkerwanderung)에 활약한 게르만의 한 부족으로 다뉴브 북안에 정주한 민족을 서고트족이라 하고, 2-3세기에 흑해 북서해안에 정주한 일군이 동고트족이다.

5) Annette, W. and W. W. Martina, op. cit., p.9.

6) 학원세계대백과사전 5권, 서울 : 학원출판공사, p.392.

7) Vernar, M. (1975).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Vol.2). Americana, p.77.

8) <http://www.geocities.com>

9) 의복에 단추를 부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추에 첨가된 조각.

10) Sally C. Luscomb (1967). The Collector's Encyclopedia of Buttons, NY : Crown Publishers Inc, pp.3-220.

⑤ 오메가형 생크(omega type shank)

알파형에 비해 좀더 둥글면서 무겁고 고리끝을 단추 몸체에 부착하기 위해 구부린 형태이다.

⑥ 샌더스형 생크(sanders type shank)

상부와 하부를 가가 다른 강철다이(die)에 넣고 압력을 가하여 성형한 후, 플레이트(plate)안에서 고리끝을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유니폼에 많이 사용된다.

⑦ 셀프 생크(self shank)

생크가 단추와 하나로 연결된 형태로 틀에 넣어 만들어진다.

⑧ 핀헤드 생크(pinhead shank)

단추 몸체를 금속편이 통과한 형태로 핀끝은 구부러져 고리역할을 한다.

⑨ 캔버스 생크(canvas shank)

철사 생크 대신에 거친 캔버스를 뒷면에 대어 바늘이 어떤 방향으로든 통과할 수 있다.

⑩ 상자형 생크(box shank)

상자모양을 한 생크의 각 면에 2~4개의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다.

⑪ 장미꽃 생크(rosette shank)

주로 색유리 단추에서 사용되며 '거미의 뒷모양' 이나 '말뚝모양'의 생크이다.

⑫ 막대기형 생크(staff type shank)

앞면은 보통 반구형으로 앞뒤 조각이 연결되어 분리된 장식을 가진 유니폼 단추에 많이 사용된다.

⑬ U자 생크(U-shank)

유리단추에 주로 사용되는 U자 모양의 생크이다.

⑭ 변발 생크

틀에 넣어 만든 단추에서 끝이 느슨한 것이 발견되는 고리생크를 말하며, 단추제조과정의 부주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하는 견해도 있다.

⑮ V자 생크(wedge-type shank)

단추공정이 끝난 후 V자 모양의 구멍을 2개나 4개 뚫는 것으로 청동, 놋쇠, 유리단추를 주로 사용한다.

⑯ 철사는 생크(wire-eye shank)

단단한 백랍(pewter) 생크를 개선한 것으로 흔하지 않은 형태이다.

고 리 생 크	
원추형 생크	
거트고리 생크	
알파형 생크	
오메가형 생크	
샌더스형 생크	
셀프 생크	
핀헤드 생크	
캔버스 생크	
상자형 생크	
장미꽃 생크	
막대기형 생크	
U자 생크	

Ⅲ. 시대별 단추디자인의 특징 및 변천

(1) 고대

일반 역사에서 고대라고 불리는 시대는 B.C 3000년경부터 A.D 400년까지의 긴 시대를 말한다. 단추의 기원은 이미 1만년 전에 뼈 조각이나 나무 조각 형태의 후크로 된 잠금단추의 사용에서 유래한다. 기원전 약 6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박으로 만든 원반모양의 이중단추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껍질 단추들도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돌로 단추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게르만 민족의 분파인 고트인들의 무덤 발굴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 무덤에서는 돌로 만들어 천을 씌운 평평한 단추가 발굴되었다. <그림 1>은 돌로 단추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단추는 기원전 4천년경의 신석기 시대 단추로 가장 오래된 단추에 속한다. 이 단추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암석에 구멍을 내고 갈아만든 것이다. 앞면에는 기하학적인 무늬로 장식되어 있고 뒤쪽에는 쇠고리가 달려있다. 이 단추들은 옷을 여미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신구로 쓰인 것으로 추측된다(지름 15mm). 이와 같이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고대에도 단추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옷을 여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중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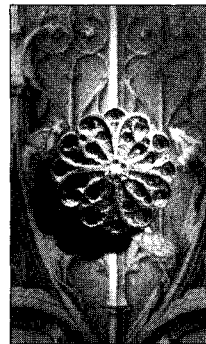
중세는 고대와 근세를 연결하는 중간적 시기로, 서로마가 멸망한 5C부터 동로마가 멸망한 15C 중엽까지의 약 1000년간을 말한다. 고대에도 단추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아직 단추는 옷을 여미는데 주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단추는 유럽의 복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13C말이나 되어 서야 단추가 새로운 유행으로 다시 나타났다.

잠금단추로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단추가 고안된 것은 십자군의 영향이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동양 의상으로부터 새로운 재단기술을 알게 됨으로 해서 유럽 전체는 새로운 유행의 변화가 생겼다. 이후부터 몸에 꼭맞게 재단된 옷은 단추의 실용적인 용도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으며,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던 튜닉 형식에서 벗어나 옷을 여미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13C이후부터 단추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했고 장식품으로 달기도 했다. 14C에 단추구멍이 고안되고부터 진정한 의미의 단추가 생기게 되었다. 그 당시 뷔르 뷔윙과 같은 남성의 상에서는 단추를 앞중심선에 달아 옷을 여미도록 하였다. 이제 단추는 옷을 여미는 주된 수단이 되어 그 실용성이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장식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귀족과 높은 계급의 시민들은 귀금속이나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달았다. 그밖에 레이스단추, 수정단추, 청동

단추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아주 촘촘하게 줄지어 달았다¹¹⁾.

<그림 3>¹²⁾은 약 15C경에 제작된 중세의 동단추로 뒷면에는 튼튼한 쇠고리가 용접되어 있다. 단추 앞면에는 화려한 장미장식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구멍을 내어 작업한 것이다(지름 33mm).



<그림 3> 동단추

(3) 근세

복식의 역사상 근세는 프랑스 혁명 전까지로 16C의 르네상스, 17C의 바로크 시대와 18C의 로코코 시대로 구분된다.

①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16C에는 중세의 종교적 분위기를 벗어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금이나 은의 세공이 단추에 이용되고 이들 단추에 비단을 씌우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시대의 단추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것이었다.

또한 단추는 착용자의 부와 명예를 표시하는 신분표시수단이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큰 단추를 달

11)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15.
12)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13.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도 금, 보석, 은, 산호, 범랑과 같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르네상스 시대는 수공업 기술이 최고로 발전했었다. 덕분에 르네상스시대인들의 예술적 표현력은 완벽한 형태감과 재료에 대한 지식으로 금속가공에서 단조, 주물, 다듬기, 압연, 용접, 색깔넣기, 각인, 새김, 상감, 요철넣기, 범랑입히기 등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금, 은사의 세공기술과 보석가공도 최고 수준에 달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 초기에 이미 보석에 구상적 모티브를 새겨넣는 기술과 음각과 장식이 새겨진 보석을 만들어 내었고 후기에는 니엘로 기술¹³⁾이나 카메오우와 같은 양각기술로 보석가공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



(그림 4) 황금단추

보석연마기술의 발달로 정교하게 작업된 보석은 원석보다 훨씬 많은 주의를 끌었다¹⁴⁾. <그림 4>는 16C경에 제작된 구형의 황금단추로, 중앙에 루비가 박혀있고 둘레에는 아칸투스잎 무늬가 손으로 각인된 것이다. 보석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 검은색과 흰색의 상감세공부분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각인기술은 가장 오래된 표면장식기술 중의 하나로 이 기술이 계속 발전되어 오늘날 프레스 기술이 되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간단한 문양이나 하나의 구상적 모티브가 새겨진 각인기를 이용해 표면에 깊게 각인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을 상감해서 생기있는 장식을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16C에는 그림이나 글자를 찍어내는 기술이 발명되어 금세공술이나 그밖의 다른 수공업 분야에서도 장신구 생산에 대량생산방식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철판이나 동판 등을

때려서 간단한 형태를 찍어내는 방식인데 철판에 장식문양이나 동물, 꽃모양 등을 새기고 얇게 만든 은판을 철판에 대고 그 위에 납을 놓고 무거운 해머로 문양형태에 따라 때리면 철판에 새겨진 문양이 은판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16C에는 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문양을 찍어내는 기계를 상용했다¹⁵⁾. 단추를 만드는데 이 기술은 17C까지 사용되었고, 이러한 기계는 반추차, 방추차편심축, 수력 프레스 공작기계 등으로 계속 발전되었다.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던 기술과 상감기술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많이 쓰였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그 기술이 완성되어 훌륭한 단추 디자인을 하는데 기여하였다.

② 바로크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며 단추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장식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남자들은 몸에 꼭 맞는 팬츠와 자켓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단추들이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이 단추들은 또한 장식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여성 의복의 단추들이 기능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이 강조되었던 것도 이때이다. 수공업과 금 세공기술에 있어 세밀한 가공을 선호해서, 정확하게 구성한 형태에 충실한 장신구가 주도적이었던 르네상스 시대가 지난 이후, 바로크 시대에는 장신구의 구성에서 중점을 둔 것은 세밀한 작업이 아니라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중시되었으며, 제작기법으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비해 비교적 정교한 작업이 덜한 금, 은도금이나 조각칼 기술이 단추제작에 사용되었다.

바로크는 웅장한 삶의 시대였다. 이제까지 양식을 주도하는 것은 남성 의상이었으며, 특히 루이 14세의 궁정양식의 영향으로 남성 코트와 조끼 양식이 주도적인 의상이 되면서 의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장신구와 장식품으로 단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3) 흑금(黑金) : 은, 구리, 납, 유황으로 이루어지는 금속성 물질 ; 장식효과를 내기 위하여 금속 의 조각무늬나 위로 솟아오르도록 새김한 바탕에 끼워넣는다 ; 니엘로 상감 ; 니엘로 세공품.

14)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15.

15)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17.



〈그림 5〉 보석단추

를 빙 둘러 장식하게 하였다. 큰 루비와 작은 루비는 철사로 엮어매어 놓은 것이다(작은단추 지름 20mm, 큰 단추 지름 25mm).

③ 로코코

18C에 들어오면서 단추는 역사상 황금기에 접어들게 된다. 단추의 수요는 막대해졌고 남녀복식공히 단추는 기능적, 장식적 용도로써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단추를 가지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단추 조각가가 따로 생기기도 하였다.

단추는 처음에는 패션, 즉 단순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만들어지다가 점차 예술작품의 예술적 기교를 모방한 하나의 독립적 공예품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납유리로 다이아몬드를, 강철로 은을,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금을 모방하는 등 유리와 각종 재료로 값비싼 보석들의 이미테이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18C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추가 가장 성행한 시기이므로 다른 시대에 비해 다양한 단추의 종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추에 사용된 재료, 문양과 제작방법 면에서 특징적인 단추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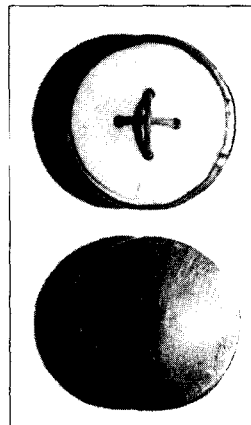
〈그림 5〉¹⁶⁾는 17C 전반기의 바로크식 보석단추로, 금은세공가가 위엄있어 보이도록 하고자 뒷면을 불룩하게 만들고 금도금한 은판으로 된 단추 앞면에는 십자가형으로 아칸투스잎들을 흰색 법랑으로 표현한 반구형의 단추이다. 그리고 작은 바로크 진주 네 개와 루비 네 개를 가운데 있는 큰 루비를

㉠ 낫쇠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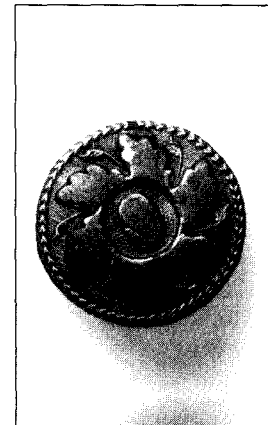
로코코 시대의 단추는 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화려함에 있어서 마지막 전성기를 맞았다. 귀족과 높은 신분의 남자들은 금, 은, 자개, 법랑 등으로 만든 단추를 사용한 반면 일반인들은 구리, 낫쇠, 나무 등으로 만든 단추를 달았다.

〈그림 6〉¹⁷⁾은 백과전서파의 디드로(Didot)가 1750년에 제작한 기계로 만든 첫 번째 단추(1750)이다. 낫쇠로 된 단추 원반을 손으로 쳐서 찍어내고 금도금하며 선반을 이용해 단추받침과 결합시키고 뼈로 된 단추받침의 가장자리를 두드려서 만든 것이다.

고리쇠는 양창자로 만든 네 개의 구멍에 끼워 단추 내부에서 매듭지워 고정시킨 거트고리 생크로 구성되었다. 〈그림 7〉¹⁸⁾은 1760년 영국에서 제작된 금도금한 낫쇠단추로, 부드러운 곡선의 꽃줄기와 흠어진 나뭇잎 등이 마치 꽃처럼 장식되어 전형적인 로코코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낫쇠단추



〈그림 7〉 낫쇠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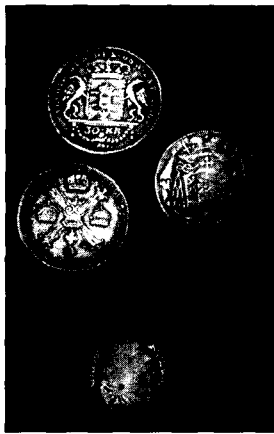
㉡ 동전단추, 문장(紋章)단추

귀족들은 가치있는 단추를 사서 자신의 재정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시민계층은 이를 흉내내 동전단추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려 했다. 시민계층의 동전으로 만든 단추와 귀족의

16)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19.
 17)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23.
 18)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1.

가치있는 단추는 일반적으로 지불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제복에 많이 사용하였던 문장단추의 선구는 동전단추이다. 이미 1670년경에 루이 14세는 자신의 군대 외투를 제복화했으며, 18C 중반 이후로 전제군주, 황제, 제후들은 자신의 수행원들로 하여금 통일된 예복과 근무복을 입도록 하였다. 높은 지위의 시민들도 하인에게 제복단추를 달도록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18C에는 이런 단추를 주로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다. 대륙에서는 단추에 집안문장을 새겼고 한 집안에서 남성용 문장과 여성용 문장을 따로 쓰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시민제복이 큰 의미를 갖



〈그림 8〉 동전 문장단추

게 되었다. 이 제복으로 인해 시민들은 의복에 달고 다니는 단추를 통해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었다. 〈그림 8〉¹⁹⁾은 18C의 동전단추와 문장단추로 형태는 원반형이다. 문장단추의 전신인 동전단추는 지불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㉞ 세공(Filigran)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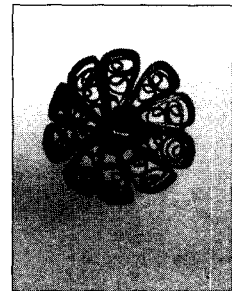
세공단추는 16C 르네상스 시대의 궁정-도시 의상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지만, 인간의 활동적 정신에 걸맞게 가벼운 장식이 선호되던 로코코 시대에 전성기를 맞는다. 실모양으로 가공한 금속선과 입자(粒子), 특히 오돌토돌하게 가공 또는 출장식을 하거나 매끄럽게 만든 금속실(絲)이 세공기술의 기본적인 재료이다. 이런 재료는 이집트와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뿐만 아니라 중세 금속세공 기술에서도 이미 사용되었다. 동전

단추는 주로 남성의상에 다는데 반해 세공단추는 대개 여성의 의상에 단다. 옷을 치장하는 물건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단추 자체의 가치 때문에 단추는 의상과 함께 상속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유산관리인의 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림 9〉²⁰⁾에서는 세공선으로 장식한 단추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 루비와 진주를 가운데 놓고 그 주위를 구리로 만든 꽃잎모양으로 둘러싸고, 그 꽃잎모양에는 흰색과 검은색 법랑을 번갈아 입혔다. 〈그림 10〉²¹⁾은 볼록한 모양의 세공단추이다. 철(鐵)에 원형, 다각형, 타원형 등의 구멍을 내고 이 구멍을 통해 얇은 금속괴를 뽑아내서 금속선을 만든 다음 압연하거나 꼬거나 잘라서 준비한 후 계속해서 여러 모티브를 기본으로 하여 알맞게 구부린 것이다.



〈그림 9〉 세공단추



〈그림 10〉 세공단추

㉟ 모조 다이아몬드 단추

18C에는 단추 이외의 다른 장신구를 만들만한 재료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단추가 주로 장신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단추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급이나 지위, 부를 상징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다. 이 시대에 남성의상은 그 화려함에 있어 마지막 전성기를 맞았고 그것은 남성의상의 단추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 18C는 '단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상의 단추는 모든 재료와 생산기술을 동원하여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에 의해 생산되었다. 귀족과 높은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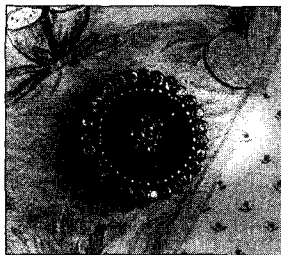
19)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26.

20)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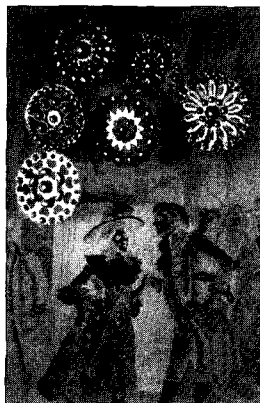
21)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27.

분의 시민남자들은 금, 은, 자개(진주모), 거북등 껍질, 사기, 상아, 법랑 등으로 만든 작은 예술작품들로 자신을 장식했다. 반면 일반인들은 구리, 놋쇠, 나무, 뿔이나 뼈, 나중에는 유리와 합성수지로 만든 단추를 달았다. 다이아몬드는 이미 바로크 시대에 보석의 황제 지위에 있었는데, 로코코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신구를 좋아했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연금술사들에 의해 모조 다이아몬드가 출현하였고 시민계급의 여자들에게 크게 유행하였다.

〈그림 11〉²²⁾에서는 1760년경에 제작된 납크리스탈로 만든 광채가 탁월한 다이아몬드 모조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모조 다이아몬드단추



〈그림 12〉 강철단추

㊤ 강철단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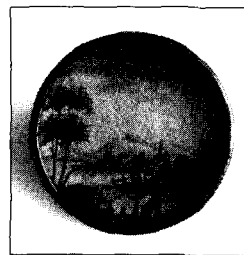
영국에서 유래한 발명품인 빛이 나도록 연마가공한 강철보석은 18C 중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강철단추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버밍햄 출신의 기업가 Matthew Boulton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단추들은 주문생

산 되었으나 곧 전 영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후 빠르게 전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다. 〈그림 12〉²³⁾에서는 1780년경에 Metthwe Boulten에 의해 제작된 강철단추를 보여주고 있다.

㊤ 미니어처어(Miniature)²⁴⁾ 그림단추

1775년경에 로코코 시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단추양식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연상시키거나 부분적으로 화가의 그림에서 따온 부분을 작게 만들어 넣은 미니어처어 그림단추는 프랑스의 단추제작자들이 만들어냈다. 미니어처어 그림단추는 종이, 상아, 도자기, 법랑 등에 그림을 손으로 그리거나 새겨넣은 것이다. 전원풍경, 연애훈제, 전원극, 초상화, 유명한 건물, 동물(곤충) 등이 모티브로 선호되었으며, 이 중 프랑스 혁명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혁명단추가 특징적이다.

〈그림 13〉²⁵⁾는 풍경 모티브를 수채화 기법으로 그린 미니어처어 그림단추이다. 18C 풍경화의 진정한 특징을 살롱에서 뿐만 아니라 파리 멧쟁이의 몸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4〉²⁶⁾는 1793년에 제작된 혁명단추로, 프랑스 대혁명(1789)의 영향을 받아 파리의 단추제조업자들이 단추에 혁명이념을 그려넣은 것이다. 이 단추에서는 혁명과 자유의 상징이 된 '프리지아 모자(phrygian



〈그림 13〉 미니어처어 그림 단추



〈그림 14〉 혁명단추

22)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0.

23)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3.

24) 종이, 상아, 도자기, 법랑 등에 전원풍경, 초상화, 동물 등의 그림을 손으로 그리거나 새겨넣은 단추.

25)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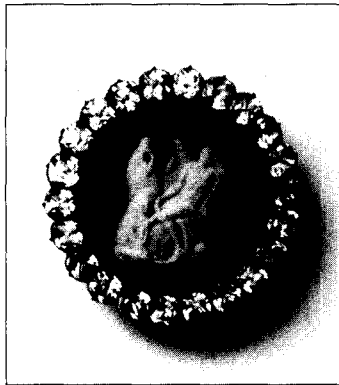
26)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8.

cap)'²⁷⁾를 보여주고 있다.

㉔ 옥(Wedgewood, Jasper) 단추

옥단추는 18C 말에 유명한 산업가 Josiah Wedgewood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Jasper 또는 Wedgewood 단추라고 불린다. 이 단추의 기본재료는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들인 비스킷 형태의 도자기로, 그 위를 고대양식으로 만든 흰색부조로 장식하였다. 단추의 광학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테두리 장식을 했는데, 금, 은, 금도금한 구리나 쇠, 자개, 연마한 쇠구슬이나 유리구슬을 사용하였다.

〈그림 15〉²⁸⁾은 18C에 유행했던 옥단추로, 푸른색 도자기에 고대양식의 흰색 부조 조각물을 붙이고 모조 다이아몬드로 둘레를 장식했다.



〈그림 15〉 옥단추

IV. 단추의 역할

(1) 장식성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 단추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었지만 고대에는 아직 단추가 옷을 여미는데 주된 기능적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옷을 여미기 위해서 보다는 장식을 위해 자신들의 키톤(Chiton)에 금속

단추를 달았다. 로마의 황제시대(A.D. 1~4C)에는 은도금한 장식용 단추들과 법랑을 넣어 세공한 단추들이 있었으며, 단추에 여러 가지 색상을 넣을 수도 있었다. 고대에는 아직 단추구멍이 고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끈으로 만든 고리나 후크, 혹은 끈으로 단추를 감아 옷을 여미는 방법이 전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여미는 방식은 기원전 400년에서 100년 사이의 Achim-Panopolis 무덤에서 발견된 고대 로마의상인 투니카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부착된 단추들은 천으로 된 매듭단추로 끈으로 만든 후크에 걸도록 되어 있었다. 약 A.D 476년경부터 사람들은 현재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 옷은 매우 험령해서 단추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의복에 있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 12, 13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복이 전보다는 몸에 꼭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단추의 기능적인 역할은 점차 커져 갔다. 또한 사람들은 레이스의 작은 틈새로 단추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단추의 모양은 둥글었고, 어떤 것은 중심에 장식무늬를 파서 넣은 것도 있었다.

14C에 단추구멍이 고안되고부터 진정한 단추 열풍이 시작되었다. 이제 단추는 옷을 여미는 주된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값비싼 장식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귀족과 높은 계급의 시민들은 귀금속이나 보석으로 된 단추를 달았다. 그밖에 레이스단추, 수정단추, 청동단추가 쓰였다고 보고되는데, 이런 단추들을 여러 개 촘촘하게 줄지어 달았다고 한다. 15C에는 단추 대신에 끈을 사용해 여미는 방식이 다시 유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단추가 옷을 여미는 기능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르네상스시대라 불리는 16C에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금이나 은세공이 단추에 이용되고 이들 단추에 비단을 씌우는 것이 유행하였다. 이 시대의 단추는 디자인에 있어서도 매우 우수한 것이었다.

27) 프리기아 또는 동양 의상의 일부로서 고대 그리스 예술에 그려져있는 부드러운 원뿔꼴의 삼각형 두건 : 18C말에서 19C초엽 이래 자유의 상징(liberty cap)으로 머리에 착용함.

28) Annette, W. and W. W. Martina, *ibid.*, p.39.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며, 단추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장식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남자들의 의복들은 몸에 꼭 맞는 팬츠와 자켓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단추들이 옷을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지만, 이 단추들은 또한 장식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다. 여성 의복의 단추들이 기능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이 강조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이다.

바로크 시대에는 남성의상에도 전환이 일어났다. 이러한 전환에는 단추라는 고가의 장신구가 필요했다. 남자들은 대개 값비싼 단추로 장식을 했다. 루이 14세의 궁정양식의 영향으로 코트와 조끼가 가장 주도적인 의상이 되었다. 이런 의상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장신구와 장식품으로 단추가 많이 사용되었다. 바지에도 밴드, 레이스 등으로 장식했고 옆선에도 단추를 달았다. 로코코 시대 단추를 다는 위치를 보면 원래 기능보다 장신구로서의 가치가 앞선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단추들이 옷을 여미는 기능을 하지 않고 순전히 장식을 목적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단추가 근본적인 기능면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18C는 단추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단추 이외의 다른 장신구를 만들만한 재료도,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성의상은 이 시대에 그 화려함에 있어 마지막 황금기를 맞았으며, 그것은 단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성의상의 단추는 그 모든 재료와 생산기술을 동원해 예술가들과 공예가들에 의해 화려하게 장신구로 생산되었다.

(2) 기능성

단추의 기능적인 역할은 단추가 의복을 여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단추가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은 중세 이후로, 잠금단추로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단추가 고안된 것은 십자군 덕분에

다. 십자군은 동양의 의상을 전리품으로 유럽에 가져와서 새로운 재단기술을 알림으로써 유럽 전체의 유행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었다. 의복은 더 이상 몸을 감싸는 천의 형태가 아니라 몸에 맞게 재단된 의상으로 변화되었다.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쓰던 이제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옷을 여미는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단추의 역할이 의복을 고정시키는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14C에는 레이스의 작은 틈새로 단추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²⁹⁾ 이 시기에 단추구멍이 고안되고부터 단추는 진정한 제 역할을 찾았다. 그 당시의 남성의상은 단추를 앞쪽에 달아 옷을 여미는데 반해 여성의상은 뒤쪽에서 여미도록 만들어짐으로써 이제 단추는 옷을 여미는 주된 수단이 되었다. 15C에는 끈을 사용해 여미는 방식이 남성과 여성 의상에서 다시 일반화되면서 다시 단추가 널리 쓰이지 않게 되었다. 셔츠의 여기저기에 한 줄이나 두 줄로 단추를 단 것을 제외하고는 반바지의 단추나 손목 부분의 잠금용 단추가 사용되었을 뿐이다.

16C에는 슬릿(slit)이 있는 옷이 출현하여 복식에서 단추가 중요하게 되었다. 겹옷과 속옷의 소매 뿐만 아니라 바지도 옆을 길게 트고 다른 옷감으로 안을 대어 주었으며 상황에 따라 이 틈새를 단추나 묶음끈을 가지고 다시 여며주었다.

18C에 들어오면서 단추는 역사상 황금기에 접어들게 된다. 단추의 수요는 막대해졌고 남녀 복식 공히 단추는 기능적, 장식적 용도로써 많이 쓰여지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가장 좋은 단추를 가지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단추 조각가가 따로 생기기도 하였다.

(3) 상징성

단추의 상징적 역할은 단추가 내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직업, 정치적, 문화적인 면

29) Co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1975). P.E. Compton Company, p.397.

과 같은 문화현상이 반영된다³⁰⁾. 사회단체의 지도자, 왕이나 황제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복상징(Clothing Symbol)으로 단추를 사용하였다³¹⁾. 복식을 통한 권위, 신분과 부의 상징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복식의 상징적 역할은 단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석기시대의 장신구들은 마법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힘을 강하게 하며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징물로, 또는 다산의 상징물로 여겨졌다. 청동기시대에는 장신구가 부와 지위의 표시였는데, 장신구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표시되었다. 보석가공과 연마기술이 있었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금박, 매끄럽게 가공한 진흙, 자수정, 청금석으로 만든 단추가 존엄이나 지위의 표시로 여겨졌다. 특히 자수정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힘과 불변성을 갖도록 해준다고 믿었다.

14C에 단추구멍이 고안되고 난 후 귀족과 높은 계급의 시민들은 귀금속이나 보석으로 된 단추를 가능한 많이 달려고 노력하였다. 독일 뉘른베르크(Nurnberg)의 입법기관은 단추의 크기, 재료, 갯수까지 법으로 제정해 이러한 사치를 막으려 했다. 그 법령에 따르면 소매에는 팔꿈치 부분까지만 단추를 달 수 있었으며, 한 의상에는 360개 이하의 단추만 달도록 하였다. 이 법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중, 하층계급 사람으로 일반시민, 농부, 특히 하인 등이었다. 이들은 단추를 이용해 신분의 상승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다. 14C의 또다른 복장법은 시민이 진주 달린 황금줄을 머리에 쓰거나 진주가 달린 단추를 다는 것을 금했다.

의복으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장신구를 달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단추가 그것을 달고 다니는 사람의 부와 명예를 표시하는 신분표

시의 수단이었다. 귀족들은 단추를 많이 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료도 금, 보석, 은, 산호, 법랑과 같은 비싼 것들이었다. 귀족이나 높은 계급의 시민만큼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중·하류 계층의 시민들도 이런 추세를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금속을 가지고 단추를 만들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시민과 농부의 복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권력과 명예를 얻은 시민들은 귀족들의 복장을 모델삼아 그들만의 고유한 외모를 만들어갔다. 반면 농부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농부의 복장에 만족하고 있었다. 이 복장에서부터 17C 민중복장이 발전되었다. 고유의 복장을 만들어낸 동기는 한 편으로는 전통적이고 직업적인 소속감을 명시하려는 요구가 커지면서 나타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높은 신분의 값비싼 복장에 대해 자신들만의 고유하고 가치있는 복장을 가지려는 욕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농민 신분의 여자들은 높은 신분 여자들의 화려한 의상을 부러워해서 솔, 밴드, 사슬, 단추 등으로 요란하게 장식하여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양으로 메우려 하였다. 신부가 쓰는 장식인 요란한 관은 이런 현상의 전형적인 상징의 예이다. 오늘날까지도 민중복장에서 단추는 신분상승과 부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한다. 한편 16C에는 머리단추가 유행하였다. 이 시대에는 죽은자의 머리에 단추장식을 하였는데 이러한 시체의 머리장식은 '장식한다'는 의미 이외에 텅 없음을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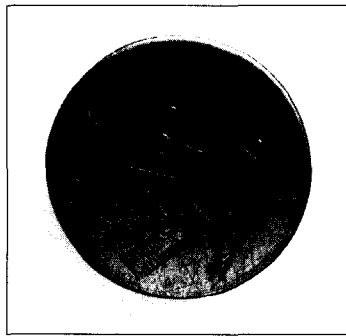
바로크 시대의 축제일 의상에 다는 단추는 여러 가지 장식이 있었다. 별이나 꽃 모티브가 많았지만 상징적인 모양의 모티브도 있었다. 말그림이 들어간 단추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농부임을 표시했고, 소머리 무늬는 도살업자 길드를 표시했으며, 콤파스, 해머, 삽무늬는 미장이 동업 조합에 소속되어 있음을 의미하였다.〈그림 16〉³²⁾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단추는 동전단추이다.

30) 송영준 (1993). 단추에 관한 연구 : 19, 20세기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2.

31)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p.170.

32) Annette, W. and W. W. Martina, op. cit., p.22.



〈그림 16〉 직업상징 단추

귀족들은 가치있는 단추를 사서 자신의 재정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시민계층은 이를 흉내내 동전단추를 사서 자신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려고 했다. 단추를 만든 재료들도 다양한 상징성을 갖는다. 단추의 재료는 그것이 비싼 가치를 갖는다는 점 말고도 그런 재료를 달고 다닌다는 점이 또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사람들은 보석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고는 몸과 마음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했다. 다이아몬드는 독을 막아주며, 루비는 내적인 기쁨을 가져다주고, 사파이어는 천상의 행복을, 에메랄드는 세속적인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다. 금속단추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되는 또 다른 종류로 문장(紋章)단추가 있는데 이에 속하는 단추가 군대제복단추, 관청제복단추, 그밖의 일반 제복단추(귀족이나 지위 높은 시민이나 하인들이 입는 제복, 회사의 제복) 등이 있다. 이런 계열의 단추의 선구는 동전단추이다. 이미 1670년경 루이 14세는 자신의 군대에 외투의 색상, 재단, 단추, 장식 등 여러가지를 통일시켜 제복화했다. 18C 중반 이후로 전유럽에서 전제군주, 황제, 제후들은 자신의 수행원들로 하여금 통일된 예복과 근무복을 입도록 했는데 그것은 대외적으로 그들이 궁정에 속해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높은 지위의 시민들도 하인에게 제복단추를 달도록 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서는 단추에 집안문장도 새겼다. 또

한 18C에는 로코코 시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풍경모티브를 수채화 기법으로 그린 미니어추어(Miniature) 그림단추가 유행하였다.〈그림 13〉 이는 단지 풍경화라는 그림을 단추에 담은 것이 아니라 대도시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갈망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원그림이 들어간 단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적 세계를 작은 동그라미 안에 그려 넣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³³⁾.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서양 단추 디자인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단추의 기원이 되는 서양 단추의 역할과 단추 디자인을 기능별, 시대별로 고찰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를 통한 각 시대별, 기능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추의 기원은 이미 1만년 전에 뼈 조각이나 나무 조각 형태의 잠금단추의 사용에서 유래한다. 기원전 약 6천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박으로 만든 원반모양의 이중단추와 신석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껍질이나 돌로 만든 단추를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는 단추가 옷을 여미는 기능적 역할 보다는 주술적인 상징품이나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현재와 같이 기능성을 갖춘 단추가 등장한 것은 13C 이후 몸에 꼭맞게 재단된 옷의 출현과 단추구멍의 고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단추가 등장하였다. 단추가 옷을 여미는 주된 수단이 되어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보석, 수정, 레이스, 청동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부와 지위를 표시하는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불리는 16C에는 수공업의 발달과 예술적인 움직임이 활발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표면장식기술과

33) Annette, W. and W. W. Martina, op. cit., p.35.

보석가공기술이 발전하였다. 또한 단추가 착용자의 부와 명예를 표시하는 상징적 신분표시수단이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큰 단추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금, 은, 보석, 산호, 법랑과 같은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며 단추는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 장식으로써 발전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세밀하게 가공된 장신구가 주도적이었지만, 바로크 시대의 장신구는 세밀한 작업 대신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중시되었다. 이 시대는 단추가 장신구와 장식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시기이기도 하다.

로코코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단추가 가장 성행한 시기로, 이 시기는 역사상 단추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단추가 하나의 독립적 공예품으로 사용되고 유리, 강철 등을 사용한 값비싼 보석들의 이미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단추가 장식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시대별 서양단추의 특성 및 역할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논문은 각 시대별 단추 디자인의 실례를 시대별, 기능별로만 나누어 설명하는데 국한시켰고, 다소 특징적인 단추들만 보여주었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또 고대의 단추는 실존하는 것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단추에 관한 자료들이 글로 된 것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추의 개별적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조각품을 보고 재구성해낼 수 밖에 없는 제약점이 있었다. 차후 이러한 제한점과 한계점을 보완하여 더 나은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표 1> 시대별 단추의 특성 및 역할

구분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단추명	잠금단추 이중단추 피벨* 매듭단추	보석단추 레이스단추 수정단추 청동단추	머리단추	보여주는 단추 비밀(금고) 단추	동전단추 어깨단추 문장단추 투터단추 방패등단추 굴뚝단추 혁명단추 미니어추어 그림단추
재료	뼈, 나무, 호박, 조개껍질, 돌	보석, 레이스, 수정, 청동	금, 은, 동, 보석, 산호, 법랑, 황금, 루비, 다이아몬드, 진주, 낚시, 나무, 비단	진주, 루비, 법랑, 낚시, 다이아몬드, 금, 은, 보석, 유리구슬, 준보석, 크리스탈	금, 은, 동, 도자기, 자개, 거북등껍질, 상아, 법랑, 강철, 오팔, 다이아몬드, 납크리스탈, 비단, 에메랄드, 시파이어, 나무, 낚시, 뼈, 꿀, 유리, 합성수지
형태	무정형	원반형, 구형	구형, 반구형	원반형, 구형, 반구형	원반형, 구형, 반구형, 팔각형
제작방법	갈아서 제작	주조	세공기술 니엘로기술 각인기술 상감기법	금, 은 도금 조각칼기술	각인기술 세공기술 금, 은, 도금 투조기술
단추의 역할	장식성, 상징성(주) 기능성(부)	장식성, 상징성(주) 기능성(부)	기능성(주) 장식성, 상징성(부)		

* 금속바늘

참고문헌

- 강두옥 (1985). 18, 19세기 단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숙 (1995). 단추의 조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에리나 (1992). 단추와 단추구멍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현 (1991). 단추 디자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순 (1996). 도제 장식용 단추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준 (1993). 단추에 관한 연구:19, 20세기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옥 (1981). 「서양복식사」. 서울:수학사.
- 이상은 (1997). 장식용 도제 단추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 (1984). 「복식문화사」. 서울:교문사.
- 학원세계대백과사전 5권. (1976). 서울 : 학연사.
- Annette, W and Martina, W. W. (1990). Knopf Design. Frankfurt am Main:Deutscher Fachverlag GmbH.
- Co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1975). P.E. Compton Company.
- Encyclopedia America, Vol. 2.(1973). Americana Co.
- Epstein, D. and Safro, M.(1991). Buttons. N.Y. : Harry N. Abrams Inc.
- Francois, B. (1987). 20000 Years of Fashion. London:Thames and Hudson.
-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 Luscomb, S. C. (1967). The Collector's Encyclopedia of Buttons. N.Y. : Crown Publishers Inc.
-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91). Random House Inc.
- Vernar, M. (1975). Button. Encyclopedia Americana Vol. 2. Americana.
- Whitemore, Joyce (1992). The Book of Buttons. N.Y.:Dorling Kindersley Inc.
- <http://kr.encycl.yahoo.com>
- <http://www.buttonkorea.com>
- <http://www.geocities.com>
- <http://www.nobelmann.com>